

개식사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금강대학교 국제선원이 개최하는 법요식에 참석하여 개식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2,585년 전에 태어나셔서 수행 과정을 거쳐 해탈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해탈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들 수 있도록 45년 동안 두루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종교학자는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문명 진보에 획기적인 일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시기(563BC~483BC)는 오늘날 소위 ‘기축시대(The Axial Age)’로 불리는, 서양력으로 800BC부터 200AD까지의 약 1천 년 사이에 해당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시기에 인류의 정신세계에 획기적인 진보를 가져오는 사상사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공자(551~479BC)에 의해 유교가 발흥했습니다. 서양의 경우,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469~399BC),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고대철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고대 로마로 이어졌습니다. 이 동서양의 철학자들 보다 조금 더 일찍 인도 땅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해탈하시어 불교를 창건하신 것입니다.

행정학자로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제 관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사회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논한 사상가들에 관한 문헌을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의 몇몇 사상가와 한국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몇몇 사상가들의 생각을 읽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원효와 율곡과 정조를 비교하는 일은 흥미롭습니다. 이 세 분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서로 다른 형태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서 발생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각각 심혈을 기울인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율곡 이이는 유자관료였지만, 시비론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조선의 다른 유자들, 예를 들면, 퇴계 이항이나 송시열 등 성리학자들과는 달리, 우열론을 수용함으로써 당파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 진리[理]가 존재한다는, 자칫 독선으로 흐르기 쉬운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많은 사람이 옳다

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합의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이들보다 먼저 원효 대사는 모든 사람의 생각에는 마치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이야기하듯이 부분적 옳음[一理]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코끼리의 전모는 아니고 따라서 옳지 않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존재론 및 인식론적 초월을 통해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무명에서 깨어나 일심(一心)에 이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전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회과학을 하는 저에게 이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전체를 보기 위한 통합의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가르침으로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울곡이 다른 성리학자들과는 달리 좀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그가 청년시절 1년 동안 강원도의 한 사찰에 머물면서 접했던 불경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문헌이 흥미롭고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의 인간 이성을 중시하는 사조가 로마로 연계되고, 거기에 이분법적 선악관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가 융합되면서 서양인들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중심의 중세시대를 거친 다음, 즉 기축시대가 1,500년쯤 지난 무렵에 문예부흥이 시작되고, 다시금 인간 이성을 중시하는 근대 사조가 꽃을 피웠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토대로 서양인들은 과학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서양은 물론이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학문의 보편적 표준은 근대 서구에서 발달한 이러한 과학적 사고방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 서구의 패러다임이 전체와 통합보다 부분과 이분법에 치중함으로써 국가 간의 끊임 없는 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학교는 근대 서양 학문의 패러다임에 전적으로 의거하는 오늘날의 대학교육 체제에 더하여, 동양 문명을 융합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서양의 학문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서 학문의 호환성을 기하면서도, 여기에 또한 불교철학을 비롯한 찬란한 동양의 지적 유산을 융합함으로써 동서양의 지혜를 고루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융합형 교육을 지향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독창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 여건을 고려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교직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그리고 협업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천태종단의 올해 부처님오신날 캐치프레이즈가 “상생과 화합”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서 부처님오신날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봉축 법요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법요식에서 법어 봉독과 봉축사를 해주시는 원해 스님께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해 스님께서는 국제선원 운영과 기숙사 사감 등 여러 면에서 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오늘 법요식을 주관하신 금강대학교 교직원 불자회 임원 여러분과 오늘 참석해주신 교직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식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6년 5월 8일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합장